

## ‘如果’와 ‘-(으)면, -거든’ 가정조건문 개념영역 대조연구\*

岳逸飞\*\*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중국어 가정조건문의 개념영역 의미
4. 한국어 가정조건문의 개념영역 의미
5. 결론

### 【초록】

이 논문은 Sweetser(1990)의 개념영역(概念域) 이론과 Traugott(1995)의 주관성 이론으로 중국어 ‘如果’와 한국어 ‘-(으)면, -거든’ 가정조건문의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대조하였다. 의미의 개념영역은 현실 세계 영역(行域), 인식 영역(知域)과 화행 영역(言域) 등 세 개의 하위분류로 나눌 수 있다. ‘如果’ 조건문과 ‘-(으)면’ 조건문은 현실 세계 영역에서 조건-결론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如果’ 조건문은 ‘-(으)면’ 조건문보다 인과 관계의 객관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주관성도 더 약하다. 인식 영역으로의 의미 확장은 범주 은유의 작용 결과이다. 인식 영역에서 ‘如果’ 조건문과 ‘-(으)면’ 조건문은 의미적 기능이 비슷하다. 화행 영역에서 ‘如果’와 ‘-(으)면’에 비해 ‘-거든’ 조건문은 조건과 결론에 대한 제약이 더 많다. 대부분 경우에 ‘-거든’은 화행 영역에서만 조건 의미가 있고 인식 영역과의 의미 중첩 현상을 가끔 보인다.

【키워드】 가정조건문, 개념영역, 주관성, 如果, -(으)면, -거든

\* 본 논문은中国国家留基委外语高层次人才培养项目的阶段性成果(编号:201806907086)。论文写作过程中得到导师金忠实教授的指导,在此深表感谢。

\*\*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박사과정 (vincentyue79@sina.com)

## 1. 서론

의미론적 측면에서 보면 조건문은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통사론적 측면에서 보면 조건문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속한다. 조건문은 가정조건문(假设条件句)과 특정조건문(特定条件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가정조건문은 다시 충분조건문(充足条件句)과 필요조건문(必要条件句)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이 외에 조건문을 광의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sup> 중한 조건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국어 조건 관련사와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대조하는 연구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건문 습득 연구이다. 하정문(2007), 이문용(2010), 王楠楠(2010)과 王淑君(2012) 등은 전자의 예로 들 수 있고 윤경애(2007), 나혜숙(2012), 张红成(2014)와 张主惠(2016) 등은 후자의 예이다. 가정조건문의 의미적 특징을 고찰할 때 대부분 학자는 복합문의 조건을 사실 조건과 비사실 조건으로 나누어서 고찰했다. 고찰된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는 주로 ‘-(으)면, -거든’과 ‘-아/어/여야’ 등이고 중국어 조건 관련사는 주로 ‘如果’와 ‘只要’ 등이다.<sup>2)</sup> 그 중 ‘-如果’와 ‘-(으)면, -거든’은 모두 가정조건문의 표지이다.

Sweetser(1990)에서 제시된 개념영역 이론은 인지언어학 이론 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발화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 등 세 개의 하위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다.<sup>3)</sup> 현실 세계 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개념영역 이론은 복합문 의미 연구의 좋은 방법론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한 연구 성과는 沈家煊(2003), 王丽超(2012)와 严莲花(2016) 등 몇 편 밖에 없다.

중한 가정조건문은 통사, 의미 등의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다. 제2언어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모국어의 비슷한 항목과 대응하거나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적절한 유추로 인해 오류가 생긴다.<sup>4)</sup> 특히 중국어 ‘如果’ 조건문의 의미적 특성은 한국어에서 ‘-(으)면’과 ‘-거든’ 두 가지 조건문으로 분산되어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은 개념영역(概念域) 이론으로 중한 가정조건문의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 의미를 살펴보고 대조하겠다. 경우에 따라 주관성 이론도 적용할 것이다. 중한 조건문의 의미론 연구와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건문 교육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1) 邵敬敏, 『现代汉语通论』, 上海教育出版社, 2007, p.258.

2) ‘假如’와 ‘倘若’ 등을 가정 조건 표기로 고찰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吕叔湘(1980:412-413)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문어체 성격이 ‘如果’보다 강하지만 의미 면에서 ‘如果’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如果’의 의미적 특징만 고찰하겠다.

3) 각 연구 성과에서 개념영역의 명칭은 달리 번역되었다. 沈家煊(2003)에서 ‘行域, 知域, 言域’로 번역되었고 严莲花(2016)에서 ‘내용 영역, 인식 영역, 발화 행위 영역’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芦茜(2016)에서 ‘现实世界领域, 认识领域, 语言行为领域’으로 번역되었다. 각 영역의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芦茜(2016)의 용어 번역을 따른다.

4) 김영실·이길연, 「对韩国留学生的“把”字句教学方法探析」, 『중국어학』, 제57집, 대한중국학회, 2016.12, p.38.

논문의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개념영역(概念域) 이론은 Sweetser(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그 후 沈家煊(2003)은 중국어의 언어 사실을 기초로 이 이론을 보완했다. 개념영역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개념 체계는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 등 세 개의 인지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개의 영역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연관성을 가진다. 단순한 사실을 서술하거나 두 대상 간의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서술하는 의미적 기능은 현실 세계 영역에 속한다. 청자가 백과지식 등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추측하거나 두 대상 간의 추론적 연관성을 도출하면 그 의미 관계는 인식 영역에서 해석된다. 명령, 청유, 제안, 부탁 등의 언어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적 기능은 화행 영역에 속한다. 이 세 개의 개념영역에서 현실 세계 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은 모두 현실 세계 영역에서 확장된 것이다. 沈家煊(2003:197)에 따르면 조건문 ‘p이면 q이다’의 의미 해석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 ① 현실 세계 영역: p라는 조건이 있어서 q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p가 존재한다는 것은 q가 나타나는 충분조건이다.
- ② 인식 영역: p라는 조건이 있어서 화자는 백과지식 및 인지 능력 등을 통해서 q라는 결론을 추론한다. 조건 p는 결론 q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화자가 결론 q를 추론하는 충분조건이다.
- ③ 화행 영역: p라는 조건이 있어서 화자는 q라는 구체적 언어 행위를 한다. 그 행위는 의문, 명령, 청유, 제안, 보증 등으로 될 수 있다. 조건 p는 발화 행위 q를 일으키는 충분조건이다.

다음 부분에서 위와 같은 분류 기준으로 중국어 ‘如果’ 조건문과 한국어 ‘-(으)면, -거든’ 조건문의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대조하겠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발화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 태도나 감정을 늘 드러낸다. 일부분 언어에서 주관성 차이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 형식이 다르다. 이런 인지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언어적 차이는 주관화(主观化)라고 한다. 주관화는 통시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공시적인 개념이기도 한다. Traugott(1995)는 문법화의 시각에서 주관화의 몇 가지 특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 가정조건문과 관련된 두 가지는 아래와 같다.<sup>5)</sup>

- ① 명제적 기능이 화용적 기능으로 변한다.
- ② 객관적 의미가 주관적 의미로 변한다.

개념영역에 따라 ‘如果’와 ‘-(으)면, -거든’ 조건문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본 후, 위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각 개념영역에서 가정조건문의 주관화 정도를 제시할 것이다.

5) 沈家煊, 「语言的“主观性”与“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 第33卷第4期, 北京外国语大学, 2001.07, p.273.

### 3. 중국어 가정조건문의 개념영역 의미

#### 3.1 ‘如果’ 조건문의 현실 세계 영역 의미

현실 세계 영역은 ‘如果’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가정조건문은 선행절 조건 아래 후행절의 결론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선, 후행절은 명확한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선행절이 후행절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如果’ 조건문에서 조건과 결론 간의 객관적 인과 관계가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된다.

- (1) 가. 如果到了冬天, 天气会变得更冷。  
 나. 如果孩子出生已有一百天, 就要办百日宴。  
 다. \*如果到了明年, 我就二十岁了。

예문(1가)에서 선행절은 규칙성 조건이다. ‘겨울이 된다’라는 조건과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결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현실 세계 영역에서 해석되는 전형적인 조건문이다. (1나)의 선행절은 사회적 관습 조건인데 (1가)와 마찬가지로 후행절 상태, 행위와의 긴밀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다. (1다)에서 ‘내년’과 ‘스무 살’ 사이에도 일정한 논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나이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1다)의 선, 후행절 연관성은 (1가, 나)보다 덜 객관적이다. 따라서 현실 세계 영역에서 해석될 때 가정 조건 표지 ‘如果’를 붙일 수 없고 ‘到了明年, 我就二十岁了’ 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해석되는 대부분 가정조건문은 결론이 유일하고 확정적이다. 그리고 선, 후행절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 후행절 중 하나가 비현실적인 것이면 개념영역 간의 전환 현상이 일어난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해석되는 가정조건문은 많은 경우에 ‘也许, 可能, 我觉得, 据我所知’ 등 주관성이 강한 표현과 결합하지 못한다. 결합해도 조건문의 객관성이 약해지지 않는다.

- (2) 가. 如果时间能倒流。人们就可以回到童年。  
 나. \*正常情况下, 如果温度升高至一百度, 水也许就会沸腾。  
 다. ?? 据我所知, 如果三角形三条边相等, 那它就是等边三角形。  
 라. ? 据我所知, 在中国, 如果一个人年满18岁, 那么他就是成年人了。

예문(2가)의 조건과 결론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현실 세계 영역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장은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고 통사, 의미론적으로도 맞는 문장이지만 뒤에서 살펴볼 화행 영역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 (2나)에서 나타난 조건 관계는 자연계의 법칙이므로 추측 표현인 ‘也许’와 결합하지 못한다. (2다, 라)에서 나타난 ‘据我所知’는 정보와 관점의 출처를 밝히고 후속 발화의 주관성을 높이는 표현이다. (2다)처럼 주관성 표지가 객관성이 강한 수학 법칙과 결합하면 문장이 매우 어색하다. (2라)는 중국에서 실행되는 법적 규정인데

외국 사람이 이 규정을 서술할 때 주관성 표지를 붙여서 불확실 의미를 나타내면 문제가 없지만 중국 사람에게 이것은 주지한 사실이어서 주관성 표지를 붙이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가정조건문은 명제적 기능만 있고 객관적 의미만 나타낸다. 예문(2다, 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때 가정조건문 내부에 객관성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관성이 매우 낮다.

### 3.2 ‘如果’ 조건문의 인식 영역 의미

화자가 조건 p를 보고 자기의 인지 능력과 백과지식 등을 통해서 결론 q를 얻으면 문장 의미는 인식 영역에서 해석된다. 이때 조건 p는 결론 q를 도출하는 직접적인 충분조건이 아니라 결과 q를 추론하는 간접적인 충분조건이다.

인식 영역에서 조건과 결론 간의 연관성은 현실 세계 영역보다 약하다. 주관적 조건 의미를 표현할 때 화자는 먼저 자기의 인지 패턴에서 객관적 조건 관계를 심리적 조건 관계로 확장시킨다. 심리적 조건 관계를 맺은 후, 화자는 이런 연관성을 두 사건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으)면’과 같은 조건 표지로 문장 표층구조에서 주관적 연관성을 나타낸다.<sup>6)</sup> 이런 의미 확장은 은유 기제를 기초로 한다. 은유는 익숙하고 기초적인 영역을 통해서 낯설고 추상적인 영역을 인식하는 인지 전략인데 크게 개념 은유와 범주 은유로 나눌 수 있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인식 영역으로의 확장은 사실 범주에서 추론 범주로의 의미적 발전인데 범주 은유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인식 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은 위 예문처럼 ‘认为, 相信, 感觉’를 비롯한 심리동사와 같이 나타날 수 있고 ‘可能, 也许’ 등 추측성 양태부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3) 가. 如果仰望星空, 人会感到自己的生命比一秒钟还短暂。

나. 他认为, 如果他一直为别人做好事, 就会有好运降临。

다. 如果光看颜色挑选水果, 可能会危害健康。

예문(3가)에서 조건인 ‘별들을 보다’는 ‘인간의 수명이 1초보다 더 짧다’라는 결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화자는 별을 보고 백과지식, 감정 그리고 인지 능력 등에 의해 후행절의 추론을 얻었다. (3나)도 마찬가지이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와 ‘행운이 찾아온다’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문장 주어인 ‘그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 따라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이 맺어지고 조건 관계도 나타난다. (3다)에서 두 사건 간의 관계는 색깔이 너무 좋으면 식품 첨가제가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배경 지식에 의해 맺어진다.

결과를 보고 원인(조건)을 추측하는 양상도 ‘如果’ 조건문의 인식 영역에서 확인될 수 있다.

(4) 가. 如果他不来参加聚会, 那可能是因为单位里有事。

나. 如果单位里有事, 他可能就不来参加聚会了。

6) 徐李洁, 「英语IF条件句主观化模式的建构」, 『外国语』, 第31卷第1期, 上海外国语大学, 2008.01, p.65.

앞에서 논의된 예문과 달리 예문(4가)는 결과가 조건(원인)보다 먼저 나타나고 결과를 통해 원인을 추측하는 문장이다. 인간 고유의 인지 패턴에 어긋나는 이런 문장은 인식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다. 조건(원인)이 선행절 위치에서 먼저 나타나는 정상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4나)처럼 현실 세계 영역의 전형적 가정조건문이 된다.

인식 영역의 ‘如果’ 조건문은 현실 세계 영역처럼 조건과 결론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가정조건문은 여전히 화용적 기능보다 명제적 기능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 영역에 거의 없는 주관적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자의 인지를 거쳐야 조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선, 후행절 사이의 연관성은 간접적, 주관적 그리고 확장되었다는 특성을 보인다.

### 3.3 ‘如果’ 조건문의 화행 영역 의미

화행 영역에서 가정조건문의 후행절은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명령, 청유, 의문, 부탁 등 구체적인 언어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조건 p는 언어 행위 q를 일으키는 충분조건이다. 이때 p와 q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인식 영역보다 더 약하다. 가정조건문은 명제적 기능보다 화용적 기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논리적 관계도 더 간접적이다. 따라서 주관성이 강하다. 아래 예문에 각각 부탁, 의문과 제안 행위가 수반된다. (5가, 나)에서는 ‘请, 呢’와 같은 화용 표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5다)에서는 평서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어 행위를 하고 있다.

- (5) 가. 如果你有时间, 我想请你帮个忙。  
 나. 如果发生紧急情况, 应该怎么办呢?  
 다. 如果你觉得无聊, 我这儿有一本挺有趣的书。

王丽超(2012:17-18)에 의하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개의치 않으시다면’ 등의 조건 표현은 결론과의 논리적 연관성이 없고 청자 체면을 유지하는 화용적 기능만 있다. 이 경우에 선행절 조건이 없어도 화자가 표현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래 예문(6)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개의치 않으시다면’라는 화용적 조건이 붙어 있어서 말이 더 부드럽고 예의가 있다.

- (6) 如果您不介意的话, 我先走一步。

비현실적인 사건을 조건이나 결론으로 하면 조건문은 명제로서의 자질을 잃게 된다. 이때 권고, 설득 등 화용적 기능만 남는데 Traugott(1995)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보면 문장의 의미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 (7) 가. 如果我是你, 我不会见那个人。  
 나. 如果有那种事情, 太阳就从西边出来了。

일부분 ‘如果’ 조건문은 개념영역의 중첩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해석, 특히 화행 영역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예문(1가)와 (4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 (1) 가. 如果到了冬天, 天气会变得很冷。
- (4) 가. 如果光看颜色挑选水果, 可能会危害健康。

보통 상황에서 예문(1가)는 객관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서술이지만 화행 영역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두꺼운 옷을 많이 준비하라고 암시하는 화용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추론 관계를 나타내는 (4가)도 색깔만 보고 과일을 고르지 말라는 명령이나 권유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조건문의 의미 해석 과정에서 이런 개념영역 간의 중첩, 유동 현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느 영역에서 해석해야 하는지는 실제 발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如果’ 조건문은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에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의 선, 후행절은 조건과 결론 간의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논리 연관성을 나타내고 추론적, 주관적 표현과 결합하기 어렵다. 이때 가정조건문 내부에 객관성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관성이 매우 낮다. 인식 영역은 현실 세계 영역의 의미 확장 결과로 볼 수 있다. 의미 확장의 과정에서 범주 은유는 중요한 기제이다. 인식 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의 선, 후행절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화자의 인지 능력과 백과지식을 통해야 주관적인 조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인식 영역에서 사건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조건(원인)을 추론하는 특수한 가정조건문도 발견되었다. 화행 영역에서 조건과 결론 간의 연관성이 진일보 약화되고 가정조건문은 명제적 기능보다 화용적 기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제안, 명령, 권유 등의 구체적인 언어 행위가 항상 수반된다. 구체적인 발화 상황에 따라 현실 세계 영역 및 인식 영역 조건문은 화행 영역과의 의미 중첩, 유동 현상이 있다.

## 4. 한국어 가정조건문의 개념영역 의미

### 4.1 ‘-(으)면’ 조건문의 현실 세계 영역 의미

현실 세계 영역에서 ‘-(으)면’ 조건문은 ‘如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如果’ 조건문에 비해 ‘-(으)면’ 조건문은 선, 후행절 간의 객관성이 덜 엄격하게 요구되고 ‘조건-결론’ 관계뿐만 아니라 ‘근거-판단’ 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으)면’은 규칙성, 관습성 조건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한 미래 조건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앞에서 살펴본 예문(1가-다)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대조하면 이런 차이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 (1) 가. 如果到了冬天, 天气会变得很冷。

- 나. 如果孩子出生已有一百天, 就要办百日宴。  
 다. \*如果到了明年, 我就二十岁了。  
 (8) 가.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나.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연다.  
 다. 나는 내년이면 스무 살이다.  
 (9) 가. \*如果到了明天, 朋友就从国外回来了。  
 나. 내일이면 친구가 해외에서 돌아온다.

위 예문을 보면 규칙성과 관습성 조건을 나타내는 (1가,나)는 각각 (8가,나)와 대응된다.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비문이 되는 (1다)도 한국어에서 (8다)처럼 자연스러운 ‘-(으)면’ 조건문과 대응될 수 있다. 예문(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 ‘내일이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의 중국어 대응 표현은 비문법적인 것이고 ‘如果’ 조건문의 선행절이 될 수 없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如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만 선행절로 할 수 있고 선, 후행절 사이의 긴밀한 논리적 관계를 요구한다. 이와 반대로 ‘-(으)면’ 조건문은 덜 객관적인 미래 실현 사건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조건과 결론 사이의 연관성 제약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으)면’ 조건문은 의미적 특성 때문에 추측성, 주관성 표지와 결합하기 어렵다. 특정한 문맥에서 관습성 조건문 앞에 주관성 표지를 붙일 수 있지만 그때 명제의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점은 ‘如果’와 비슷하다.

- (10)가. \*내가 알기로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나. ? 내가 알기로는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연다.  
 다. \*나는 내년이면 아마 스무 살일 것이다.

‘-에 의하면, -에 따르면’과 ‘논의를 요약하면’ 등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李得春(2009:348)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복합문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의 근거이다. 이런 ‘-(으)면’류 표현으로 연결된 조건문도 현실 세계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다.

- (11)가.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생각해 보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에 비가 내리겠다.

예문(11가,나)에서 ‘요약하다’와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후행절 판단을 도출하는 전제 및 기초이다. (11다)의 후행절은 추측의 의미가 있지만 화자 자신의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선행절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서술하는 것이다. 이런 ‘근거-판단’의 객관적 의미 관계 때문에 ‘-에 의하면, -에 따르면’과 ‘요약하면’을 비롯한 ‘-(으)면’류 표현도 현실 세계 영역에서 해석된다.

‘근거-판단’ 조건문과 인과 관계 조건문의 의미 차이는 선, 후행절의 순서 바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예문(8나)와 (11나)에서 선행절은 각각 후행절 내용의 원인과 근거가 된다. 이 두 문장의 선, 후행절 순서를 바꾸면 다음과 같다.



(12)가. 백일잔치를 열면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었다.

나.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면 생각해 보았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현실 세계 영역 가정조건문에서 조건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 추론 의미가 나타나고 인식 영역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근거-판단’ 관계를 가진 (12나)에서 선, 후행절의 순서는 바꿀 수 없다.

## 4.2 ‘-(으)면’ 조건문의 인식 영역 의미

인식 영역에서 ‘-(으)면’ 조건문의 의미적 기능은 ‘如果’ 조건문과 비슷하다. 조건과 결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화자가 전형적인 조건 관계를 확장시켜서 자기의 인지 능력으로 두 사건 간의 주관적 조건 관계를 맺는다. 인식 영역에서 ‘-(으)면’ 조건문은 추론적 인과 관계로 해석될 수 있고 ‘민다, 느끼다’ 등의 심리동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13)가. 별들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1초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나. 그 사람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아마’를 비롯한 추측성 양태부사도 인식 영역의 ‘-(으)면’ 조건문과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심리동사와 양태부사가 모두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은 추론적 조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14)가. 눈이 크게 내리면 내년은 아마 풍년이 될 것이다.

나. 색깔만 보고 과일을 고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결과를 보고 원인(조건)을 추론하는 양상도 ‘-(으)면’ 조건문의 인식 영역에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같은 영역의 ‘如果’ 조건문처럼 조건과 결론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선, 후행절의 순서를 바꾸면 현실 세계 영역의 의미 관계가 나타난다.

(15)가. 그 사람이 모임에 안 오면 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으면 그 사람이 모임에 안 올 것이다.

## 4.3 ‘-(으)면’ 조건문의 화행 영역 의미

화행 영역에서 ‘-(으)면’ 조건문은 의문, 명령, 청유, 제안, 경고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으)면’ 조건문에 수반되는 언어 행위는 후행절에서 종결어미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문맥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발화를 부드럽고 예의 있게 하는 화용적 기능도 있다.

- (16)가.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우리 공원에 가자.  
 나. 심심하면 나한테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한 번 방문해도 될까요?

‘-았/었/였으면 하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강한 희망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인데 이들의 의미는 화행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다.

- (17)가. 빨리 끝났으면 한다.  
 나.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화행 영역에서 비현실적 사건은 ‘-(으)면’ 조건문의 조건 또는 결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과의 의미 중첩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如果’ 조건문과 비슷하다.

- (18)가. 내가 너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19) 길에서 장난치면 다칠 가능성이 있다.

예문(18)은 비현실적인 조건과 결론이 나타나는 예이다. (18가)에서 화자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청자에게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권유를 하고 있고 (18나)에서 화자는 비현실적인 자연 현상으로 선행절에서 나타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선, 후행절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은 미약하고 선행절은 결론을 도출하는 충분조건보다 언어 행위를 일으키는 근거나 전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일반 상황에서 예문(19)는 현실 세계 영역에서 해석되어야 하지만 화행 영역에서 청자를 경고하거나 저지하는 언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개념영역 이론으로 보면 ‘-(으)면’과 ‘如果’ 조건문은 의미적 특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현실 세계 영역에서 ‘-(으)면’ 조건문은 ‘내년이면, 내일이면’ 등의 미래 실현 사건을 선행절로 할 수 있고 선, 후행절 사이의 객관적 연관성 제약이 ‘如果’보다 약하다. 둘째, ‘-(으)면’ 조건문은 현실 세계 영역에서 ‘-에 의하면, -에 따르면’과 ‘논의를 요약하면’ 등의 표현으로 ‘근거-판단’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如果’ 조건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미 기능이다. 셋째, 화행 영역에서 ‘-았/었/였으면 하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 구조로 화자의 강한 희망이나 기대를 표현하는 것도 ‘-(으)면’의 특유한 기능이다.

#### 4.4 ‘-거든’ 조건문의 화행 영역 의미

‘-거든’과 ‘-(으)면’은 모두 조건 연결어미이지만 문체, 통사와 의미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7)

우선, ‘-거든’ 조건문은 구어체보다 문어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서울대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의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에서 연결어미 ‘-거든’의 용례를 각각 검색했다.<sup>8)</sup> 문어 자료에서는 용례 사백 개 정도가 확인되었지만 구어 자료에서는 용례 십 여 개만 확인되었다. 구어 자료에서 종결어미 ‘-거든’의 용례가 혼재되어 있어서 ‘-거든’ 조건문의 실제 용례는 훨씬 적다.

대부분 ‘-거든’ 조건문의 후행절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 말뭉치에서 연결어미 ‘-거든’이 포함된 문장을 검색하고 맨 앞에 나타나는 오십 개의 문장을 살펴봤다. 그 중 명령문이 아닌 문장은 아홉 개만 있고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명령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0)가. 만약 또 이런 짓을 하거든 돌멩이라도 던져라.

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다. 굳이 법을 고집하겠거든 원산지로 되돌려 방생하지.

라. 참으로 동족을 사랑하거든 그들을 위하여 제도의 개혁을 꾀하고 생활의 개선도 지도해야 한다.

마. 내 자식이 아니거든 내 자부랄 수 있나?

예문 (20가,나)는 명령형 종결어미로 끝나는 전형적인 ‘-거든’ 조건문이다. (20다,라)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되돌려 방생해라’와 ‘생활의 개선도 지도해라’라는 명령의 뜻이다. 수식 의문문인 (20마)의 경우 후행절은 ‘내 자부라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외에 ‘-거든’ 조건문은 약속, 의지 표현, 청유와 단순 의문 등의 화행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용례는 적고 비전형적이다.

(21)가. 애, 대학 가거든 컴퓨터 사줄게.

나. 유럽가거든 마음대로 놀다오는 거야.

다. 주식 값이 오르거든 이 기회에 모두 팔아버립시다.

라. 비가 그치거든 출발할 거예요?

말뭉치에서 (21가,나)와 같은 용례가 확인되었다. 전자는 ‘-르게’ 종결어미를 통해 상대방과 약속 행위를 하는 문장이고 후자는 ‘-르 것이다’로 화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말뭉치에서 청유나 단순 의문 행위가 수반되는 ‘-거든’ 조건문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문법책에서 (21다,라)와 같은 용례가 확인되었다.

‘-거든’ 조건문은 선행절의 의미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있다. 대부분 경우에 명령, 약속, 청유와 의지 표현 등의 언어 행위는 미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든’ 조건문의 선행절 위치에서 미래와 현재 사건이 더 많이

7) 본 논문에서 조건 연결어미로서의 ‘거든’만 고찰하고 사실, 이유 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거든’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 서울대 꼬꼬마 세종 말뭉치의 인터넷 주소는 kkma.snu.ac.kr이다. 아래 부분에서 ‘말뭉치’라고 약칭한다.

나타난다. 과거 사건을 조건으로 해서 명령, 청유 등의 행위를 하면 문장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거 사실과 상반된 사건을 조건으로 해서 후회나 희망을 나타내는 것도 ‘-거든’의 화행 영역 기능이 아니다.

- (22)가. 나가거든 우리 영자한테 안부나 전해주슈.  
 나. \*나갔거든 우리 영자한테 안부나 전해주슈.  
 다. 스스로 밝히지 못하겠거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라. \*스스로 밝히지 못했거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예문(22가,다)에서 현재 사건과 미래 사건이 각각 ‘-거든’ 조건문의 선행절 위치에 나타나 있다. 과거 사건으로 바꾸면 조건-결론 관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지만 의미와 통사적 측면에서 문장이 어색해진다. 말뭉치에서 연결어미 ‘-거든’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맨 앞에 나타나는 오십 개의 용례를 살펴보면 과거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문장은 네 개 정도만 있고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들 용례에서 선행절은 순수한 과거 사건이 아니다.

- (23)가. 내 죽은 뒤 삼 년 지나서 관을 열되, 시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고 시신이 썩었거든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니 싸잡아 불사르라.  
 나. 만남은 사건의 발단에 불과하다. 만났거든 일이 벌어져야 한다. 그것은 전개다.

예문(23가)는 어떤 스님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가 죽은 후 시신의 처리 방법을 알리는 말이다. 문맥을 보면 이 문장에서 ‘썩었거든’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죽은 뒤 삼 년’이라는 시점에서 보는 ‘미래 과거’이다. (23나)는 산문에서 추출된 문장인데 여기서 ‘만났거든’도 이미 일어난 과거 상황이 아니라 ‘전개’의 시점으로 보는 ‘상대적 과거’이다. 실제 시제는 ‘현재’이다. 따라서 ‘-거든’ 조건문의 선행절 위치에서 현재와 미래 사건은 선호되고 단순한 과거 상황은 조건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혜숙(2012:44)는 한국어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조건을 ‘사실 조건, 사실적 가상 조건’과 ‘반사실적 가상 조건’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선행절이 ‘사실 조건’인 경우 문장은 사실 그 자체를 조건으로 해서 후행절 내용이 성립된다. 선행절이 ‘사실적 가상 조건’인 경우에 화자는 먼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사실임을 가정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후행절 결론을 얻는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불가능한 사건이 선행절에서 나타나면 ‘반사실적 조건’이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거든’ 조건문의 선행절은 ‘사실적 가상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조건’ 및 ‘반사실적 가상 조건’과 결합하지 못해서 ‘-거든’ 조건문은 현실 세계 영역에서 나타나기 어렵고 화행 영역에서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 (24)가. 봄이 되면 꽃이 핀다.  
 나. \*봄이 되거든 꽃이 핀다.  
 다. 내가 새라면 멀리 날아갈 것이다.  
 라. \*내가 새이거든 멀리 날아갈 것이다.

예문(24가,나)와 (24다,라)는 각각 ‘사실 조건’과 ‘반사실적 가상 조건’의 예이다. (24가)는 자연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고 (24다)는 화자 개인 기분이나 생각에 관한 서술이다. 위 예문 간의 비교를 통해 ‘-거든’ 조건문 선행절의 의미 제약을 확인할 수 있다.

나혜숙(2012:44-45)에 따르면 ‘-(으)면’과 ‘-거든’은 모두 가정조건문의 연결어미이지만 사실성 강약의 차이가 있다. ‘-거든’의 사실성은 ‘-(으)면’에 비해 강하다.

(25)가.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겠다.

나. 민호가 학교에 가거든 너는 집에 오너라.<sup>9)</sup>

‘-(으)면’이 나타난 예문(25가)에서 ‘비가 온다’라는 사건의 발생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반대로 ‘-거든’이 나타나는 (25나)에서 ‘민호가 학교에 간다’라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강한 사실성’ 그리고 ‘미래 가상’ 두 가지 의미적 특성 때문에 ‘-거든’은 청자 체면을 유지하는 화용적인 조건문을 구성할 수 없다.

(26) \*실례가 되지 않는다거든 제가 한 번 방문해도 될까요?

위 예문에서 선행절 조건은 사실과 상반되고 미래에 대한 화자의 상상도 아니다. 따라서 문장은 비문이 된다.

경우에 따라 ‘-거든’ 조건문은 화행 영역과 인식 영역 사이의 의미 중첩 현상을 보인다. 이때 청자는 백과지식과 인지 능력을 통해야 선행절 조건과 후행절 언어 행위 간의 연관성을 맺을 수 있다.

(27) 좋은 충고를 얻고 싶거든 노인부터 찾아가라.

예문(27)을 보면 청자는 ‘노인이 인생 경험이 많아서 좋은 충고를 줄 수 있다’라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 후행절 간의 연관성을 맺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명령 행위가 수반되는 화행 영역 조건문이지만 인식 영역과의 의미 중첩 현상이 있다.

대부분 경우에 ‘-거든’ 조건문은 화행 영역에서만 해석될 수 있어서 의미 주관성이 강하다. ‘-거든’ 조건문은 구어체보다 문어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선행절 위치에서 ‘사실적 가상 조건’이 나타나야 하므로 현재와 미래 사건이 더 선호되고 과거 사건이 나타나도 대부분 경우에 현재나 미래 시각에서 보는 ‘상대적 과거’이다. ‘-거든’은 ‘강한 사실성’ 의미 자질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건과 결합하지 못하고 청자의 체면을 유지하는 화용적 가정조건문도 구성하지 못한다.

개념영역에 따라 ‘如果, -(으)면’과 ‘-거든’ 조건문의 의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9) 나혜숙, 『중국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건 관계 연결어미 습득 양상 연구: ‘-(으)면, -거든, -어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06, pp.44-45.

&lt;표1&gt; '如果, -(으)면'과 '-거든' 조건문의 현실 세계 영역 의미

	조건-결론 관계			근거-판단 관계
	규칙성 조건	관습성 조건	미래 실현 가능 조건	
如果	+	+	-	-
-(으)면	+	+	+	+
-거든	-	-	-	-

<표 2> '如果, -(으)면'과 '-거든' 조건문의 인식 영역 의미<sup>10)</sup>

	조건-결론 추측	결과-원인 추측
如果	+	+
-(으)면	+	+
-거든	(+)	-

&lt;표 3&gt; '如果, -(으)면'과 '-거든' 조건문의 화행 영역 의미

	일반 화행 영역 의미	강한 희망 또는 기대	비현실적 조건으로 권유 또는 제안	청자 체면 유지
如果	+	-	+	+
-(으)면	+	+	+	+
-거든	+	-	-	-

## 5. 결론

인간의 공통적인 인지 패턴으로 말미암아 중한 가정조건문의 의미는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 및 화행 영역 등 세 개의 개념영역에서 나눠서 해석될 수 있다. 그 중 현실 세계 영역은 인식 영역과 화행 영역의 기초이다. 가정조건문 의미 관계의 확장 과정에서 범주 은유 등 인지적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Traugott(1995)에서 제시된 주관성 판정 기준으로 가정조건문 개념영역의 주관성 정도를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화행 영역 > 인식 영역 > 현실 세계 영역

현실 세계 영역에서 조건문의 조건과 결론은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에 조건문은 화용적 기능이 거의 없고 명제를 서술하는 기본적인 기능만 있다. 가정조건문의 인식 영역 의미는 전형적인 조건 관계에 심리적 인지 과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선, 후행절은 여전히 논리적 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

10) '-거든' 조건문은 인식 영역에서 조건-결론 추측 의미를 단독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화행 영역 의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영역 중첩 현상을 보일 뿐이다.

건은 현실 세계 영역처럼 결론의 직접적인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인식 영역 조건문의 결론은 화자가 조건을 보고 자기의 인지 능력과 백과지식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화자의 인지 과정을 거쳐야 논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주관성은 현실 세계 영역보다 강하다. 인식 영역에서 조건문의 화용적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화행 영역에서 조건과 결론 간의 객관적 연관성은 진일보 약화되고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사건은 화행 영역에서 조건이나 결론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명제를 서술하는 기능보다 의문, 명령, 청유 등의 화용적 기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질적인 인과 관계가 없고 청자의 체면을 유지하는 순수한 화용적 조건문도 화행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의미가 현실 세계 영역에서 화행 영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은 논리적 연관성에서 심리적 연관성으로, 객관적 인과 관계에서 주관적 인과 관계로, 명제적 기능에서 화용적 기능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 세 가지 개념영역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관성을 가진다. 문맥에 따라 현실 세계 영역과 인식 영역 조건문에도 의문, 명령, 청유 등의 언어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

‘如果’ 조건문과 ‘-(으)면’ 조건문은 현실 세계 영역에서 조건-결론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현실 세계 영역에서 ‘如果’와 ‘-(으)면’은 문장 선, 후행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제약이 있다. ‘如果’ 조건문은 ‘-(으)면’보다 인과 관계의 객관성과 긴밀성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주관성이 더 약하다. ‘-(으)면’ 조건문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 ‘如果’는 이런 기능이 없다.

인식 영역에서 ‘如果’ 조건문과 ‘-(으)면’ 조건문은 의미적 특성이 비슷하다. 조건 표지로 문장 선, 후행절 사이의 추론적 인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의미 주관성은 현실 세계 영역보다 강하다.

‘如果, -(으)면’과 ‘-거든’ 조건문은 모두 화행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 화행 영역에서 ‘如果’와 ‘-(으)면’ 조건문은 조건의 시제, 현실성에 대해 큰 제약이 없고 후행절에서 의문, 명령, 청유뿐만 아니라 권고, 희망 등 여러 가지 언어 행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현실 세계 영역, 인식 영역과의 의미 중첩 현상이 나타난다. ‘-거든’ 조건문은 의미적, 통사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다. 실현이 가능한 사건만 조건이 될 수 있고 과거 사건보다 현재와 미래 사건이 더 선호된다. 후행절에서 항상 언어 행위가 수반되는데 종결어미로 나타내는 직접적인 명령 행위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거든’ 조건문은 화행 영역과 인식 영역 사이의 의미 중첩, 유동 현상도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영실·이길연, 「对韩国留学生的“把”字句教学方法探析」, 『중국어학』, 제57집, 대한중국어학회, 2016.12.
- 나혜숙,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건 관계 연결어미 습득 양상 연구: ‘-(으)면, -거든, -어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06.
- 윤경애,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연구: 조건 표현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02.
- 이문용, 「한중 조건문의 대조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08.
- 하정문,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와 중국어 조건 관련사어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08.
- 李得春, 『韩国语语法教程』,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9.
- 芦 茜, 「现代日语言说动词描写研究——以言说内容、言说认识、言说行为三领域中的语义功能为主」, 北京外国语大学日语语言文学专业博士学位论文, 2016.10.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1980.
- 邵敬敏, 『现代汉语通论』, 上海教育出版社, 2007.
- 沈家煊, 「语言的“主观性”与“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 第33卷第4期, 北京外国语大学, 2001.07.
- , 「复句三域“行、知、言”」, 『中国语文』, 第294期,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2003.05.
- 王丽超, 「假设复句行知言三域研究」, 哈尔滨师范大学汉语言文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12.06.
- 王楠楠, 「韩国语条件关系连接词尾在汉语中的对应形式」, 吉林大学汉语国际教育专业硕士学位论文, 2010.10.
- 王淑君, 「中韩条件复句对比研究——以表现条件关系的连接要素为中心」, 中国海洋大学亚非语言文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12.06.
- 徐李洁, 「英语IF条件句主观化模式的建构」, 『外国语』, 第31卷第1期, 上海外国语大学, 2008.01.
- 严莲花, 「韩国语条件句的认知语用研究」, 上海外国语大学外国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博士学位论文, 2016.06.
- 张红成, 「中高级汉语水平韩国学生汉语条件复句偏误分析」, 南京大学汉语国际教育专业硕士学位论文, 2014.05.
- 张主惠, 「汉语中高级韩国留学生条件、让步类关联词语使用偏误情况考察」, 南京大学汉语国际教育专业硕士学位论文, 2016.05.
- Sweetser, 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Traugott, E. C,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zation",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vember 1995.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假设条件句, 概念域, 主观性, 如果, -(으)면, -거든		
	영문	Hypothesis Conditional, Conceptual Domain, Subjectivity, <i>Ruguo</i> , <i>-(eu)myeon</i> , <i>-geodeun</i>		
<div>A Contrastive Research on the Conceptual Domains of 'Ruguo' and -(eu)Myeon, -Geodeun' Hypothesis Conditionals</div> <div>Yue, Yi-Fei</div> <p>Based on Sweetser(1990)'s Conceptual Domain Theory and Traugott(1995)'s Subjectivity Theory, this paper compares the semantic features of hypothesis conditional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research subjects are "ruguo", "-myeon" and "-geodeun". The conceptual domain of semantics can be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content domain, epistemic domain and speech act domain. The subjectivity strength of the three domains can be manifested as "speech act domain &gt; epistemic domain &gt; content domain". The "-myeon conditional" and "ruguo conditional" can express the condition-conclusion relationship in the content domain. At this time, compared with the "-myeon conditional", the "ruguo conditional " has stricter requirements on the objectivity of causality and it is less subjective. In the "-myeon conditional", the first half sentence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objective conclusion, but there is no such phenomenon for the "ruguo conditional". In the epistemic domain, the "-myeon conditional" and the "ruguo conditional" have similar semantic functions. The "-myeon, ruguo" and "-geodeun" conditionals can all be understood in the speech act domain. Compared with the "-myeon" and "ruguo" conditionals, there are relatively more constraints on the "-geodeun conditional". Most "-geodeun conditionals" can only be understood in the speech act domain, and sometime there is overlap between the speech act domain and the epistemic doma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reference materials to the semantic study of conditionals. It can also give help to the teaching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악일비 / 岳逸飞 / Yue, Yi-Fei		
	소 속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Em@il	vincentyue79@sina.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4월 24일	심 사 일	2019년 05월 23일
	수 정 일	2019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6월 18일